

# 스포츠

6

2019년 7월 23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한국 남자 펜싱 사브르 대표팀 선수들이 22일(한국시간)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19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결승에서 홈팀 헝가리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부다페스트(헝가리) | AP뉴시스

## 한국 남자 펜싱 사브르 대표팀 세계선수권 단체전 3연패 쾌거

개인전 **김 오상욱** 헝가리 꺾고 2관왕

한국 남자 펜싱 사브르 대표팀이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3연패를 달성했다.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 오상욱, 하한솔(이상 성남시청), 김준호(화성시청)로 이뤄진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22일(한국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19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결승에서 홈팀 헝가리를 45-44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8강에서 루마니아(45-34 승), 준결승에서 독일(45-22 승)을 완파하고 결승에 오른 한국은 헝가리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접전을 펼쳤다. 경기 내내 접전이 이어진 가운데 한국은 43-43 동점 상황에서 한 점을 내주면서 위기에 몰렸으나 오상욱이 2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짜릿한 역전극을 이뤘다.

이번 우승에 앞서 한국은 2017년과 2018년에 김정환(국민체육진흥공단), 구본길, 오상욱, 김준호가 팀을 이뤄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김정환 대신 하한솔이 가세한 한국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펜싱 역사상 세계선수권대회 3연패는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선수권대회 3연패는 과거 러시아 남자 대표팀이 단체전에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이뤄낸 바 있다.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3연패는 큰 의미가 있는 성과다. 남자 사브르 단체전은 그동안 유럽 국가들이 초강세를 드러낸 종목이다. 이 가운데에서 한국은 최근 3년간 정상 자리를 지켜오면서 명실상부한 펜싱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세계랭킹 1위로 올라선 오상욱은 단체전에서도 동료들과 우승을 합작하며 대회 2관왕에 등극, 세계 최고의 선수임을 입증했다. 그는 지난 2월 카이로 그랑프리과 4월 서울 그랑프리, 6월 아시아선수권에서 정상에 오른 바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남자 펜싱 사브르는 내년 도쿄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는 최인정(계룡시청), 강영미(광주 서구청), 이혜인(강원도청), 정효정(부산광역시청)이 한 팀을 이뤄 7위에 올랐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 아일랜드 출신 세인 로리, '디오펜' 우승의 특별한 의미



세인 로리(아일랜드)가 22일(한국시간) 영국 북아일랜드 로열 포트러시 골프클럽에서 열린 제148회 디 오픈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에 입맞춤하고 있다. 북아일랜드 출신 캐디와 호흡을 이뤄 이뤄낸 우승이라 의미가 남달랐다. 로열 포트러시(영국) | AP뉴시스

# “원 아일랜드” 감동의 우승키스

분쟁의 역사 현장에서 열린 디오픈 북아일랜드 스타 매길로이 컷 탈락 아일랜드인 로리가 첫 메이저왕관 “우린 하나” 클라렛 저그에 입맞춤

전설적인 록밴드 U2는 1983년 ‘선데이 블러디 선데이(Sunday Bloody Sunday)’라는 곡을 발표한다. 이 노래가 담고 있는 아픔은 1972년 1월 30일 북아일랜드 데리에서 발생한 ‘피의 일요일’ 사건이다. 비폭력 시위를 전개하던 군중에게 무차별적으로 발포된 영국 공수부대의 총탄으로 청소년들을 포함해 10명이 넘는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참변. 이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놓고 찬성과 반대로 갈라진 아일랜드섬의 오랜 분쟁을 그대로 드러내는 비극이었다. 아일랜드인들로 결성된 U2는 “과연 승자는 누구인가”라고 외치며 분쟁의 역사를 꼬집는다.

그로부터 약 반세기가 지난 2019년 7월 22일, 당시 아픔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북아일랜드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북아일랜드와 분단된 아일랜드 출신의 세인 로리(32)가 영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골프 대회에

순위	선수	스코어	라운드별 타수
우승	세인 로리	15언더파 269타	67-67-63-72
준우승	토미 플릿우드	9언더파 275타	68-67-66-74
3위	토니 파나우	7언더파 277타	68-70-68-71
공동 4위	리 웨스트우드	6언더파 278타	68-67-70-73
	브록스 캠퍼		68-69-67-74
공동 6위	로버트 맥킨타이어	5언더파 279타	68-72-71-68
	타이틀 해튼		68-71-71-69
	대니 윌렛		74-67-65-73
	리키 피올러		70-69-66-74
10위	패트릭 리드	4언더파 280타	71-67-71-71

서 정상을 밟은 것이다.

로리는 북아일랜드 로열 포트러시 골프클럽(파71·7344야드)에서 열린 제148회 디 오픈(총상금 1075만 달러·약 126억7000만 원) 최종라운드에서 함께 15언더파 269타를 기록하고 대회 상징인 ‘클라렛 저그’를 안았다.

1951년 이후 68년 만에 자신들 품으로 돌아온 디 오픈을 맞아 북아일랜드인들은 자국 출신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를 기원했다. 특히 ‘차세대 황제’로 불리는 로리 매길로이(30)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역사의 아이러니처럼 디 오픈의 영광은 또 다른 ‘로리’에게 돌아갔다.

로리는 매길로이가 일찌감치 컷 탈락한 상황에서 2라운드부터 사흘 내리 선

두를 달리면서 싱거운 레이스를 펼쳤다. 4타차 단독선두로 출발한 최종라운드에선 버디 4개와 보기 5개를 기록하며 다소 기록을 보였지만, 추격자들이 힘을 쓰지 못하면서 여유 있게 생애 첫 메이저왕관을 품었다.

이날 경기를 생중계로 지켜보던 아일랜드인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으면서 우승상금 193만5000달러(22억3000만 원)를 안은 로리는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을지 확실할 수 없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있다는 사실 자체를 믿기 어렵다”며 감격을 표했다.

아일랜드와 영국이 견원지간인 점과 달리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는 적대감이 다소 덜하다. 영토는 분단됐지만, 서로 왕래가 가능하고 뿌리가 같다는 인식이 짙은 덕분이다. 북아일랜드 출신 캐디인 브라이언 마틴과 함께 영광을 누린 로리는 “골프 안에서 우리는 한 나라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번 디 오픈에서 박상현(36)은 2언더파 282타 공동 16위를 차지해 8명의 한국 선수들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고훈준 기자 shutoul@donga.com

## 동아 3대 마라톤 완주 ‘런저니’ 이벤트



동아마라톤 3개 대회(서울·공주·경주) 풀코스(하프코스, 10km 부문)에 참가해 모두 완주한 참가자는 내년 4월 런던마라톤에 참가할 기회를 얻는다. 세계 6대 마라톤 대회 중 하나인 런던마라톤은 참가 문턱이 높아 마라톤 사이에서 꿈의 대회로 불린다. 사진은 2018년 공주백제마라톤에서 총성과 함께 출발하는 참가자들. 스포츠동아DB

## 서울국제-공주-경주 찍고 꿈의 대회 런던 마라톤으로

‘런 저니(Run Journey·달리기 여행) 완성하고 런던 마라톤 도전하세요.’

동아마라톤 3개 대회(서울국제·공주백제·경주국제마라톤)를 모두 완주한 참가자에게는 2020년 4월에 열리는 런던 마라톤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진다.

1981년 시작한 런던마라톤은 세계 6대 마라톤 대회 중 하나다. 올해는 세계에서 신청자 40만 명 가운데 4만 명만이 참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참가 문턱이 높아 마라톤 사이에서는 ‘꿈의 대회’로 불린다.

올해 동아일보사는 3월 열린 서울국제마라톤을 대회 넘버 ‘01’, 9월 공주백제마라톤을 ‘02’, 10월 경주국제마라톤을 ‘03’으로 지정해 달리기 여정에 의미를 부여하는 ‘런 저니’ 이벤트를 마련했다.

동아마라톤과 손잡은 글로벌 스포츠브랜드 ‘뉴발란스’는 런던마라톤 공식 후원사이기도 하다. 뉴발란스는 3월 열린 서울국제마라톤을 정상 완주하고 공주, 경주 대회 풀코스와 하프코스, 10km 부문에 참가해 동아마라톤 3개 대회를 정상 완주한 참가자 중 한 명을 선발해 런던마라톤 참가권 및 교통과 숙박 일체를 제공한다.

공주와 경주 대회를 모두 신청한 참가자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8월 14일 오후 5시까지 공주, 경주 대회 홈페이지에 있는 ‘런던마라톤 챌린지’ 코너를 참고해 인적사항과 사진, 참가 이유 등을 작성해 이메일(marathon@donga.com)로 보내면 된다. 서류 심사 및 3개 대회 정상 완주 기록을 확인해 경주 대회 후 당첨자를 발표한다.

동아마라톤대회 참가자는 런던대회뿐만 아니라 계절별로 해외의 명문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서울국제마라톤에서 풀코스를 완주한 참가자에게는 11월 뉴욕마라톤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동아마라톤의 우수 마스터스는 8월 홋카이도마라톤, 동아마라톤 올해의 선수 영리너는 내년 2월 도쿄마라톤에 나갈 수 있다.

한편 공주, 경주 대회 참가 신청은 대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할 수 있다. 풀코스와 하프코스 10km 부문 참가자에게는 뉴발란스 기능성 티셔츠를, 5km 단축마라톤 참가자에게는 양말을 제공한다.

강선 기자 posterboy@donga.com

## ‘WKBL 동포선수 선발 제도 부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최용석의 팀인**

첼시 리 사태로 망신 당했던 WKBL 구단들 선수수급 요청에 결국 두손 FA이적 등 장기적 해결책이 더 중요

WKBL(한국여자농구연맹)은 최근 제23기 제1차 이사회를 열어 외국 국적 동포선수 규정 을 논의하고, 2019~2020시즌부터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외국 국적 동포선수는 부모 중 최소 1인이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거나 현재 국적을 보유하고, 대한농구협회에 등록된 적이 없는 자로 드래프트를 통해 선발하기로 했다. 세부 규정을 보완해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2019~2020시즌 신인 드래프트는 내년 1월 개최될 예정이다.

외국 국적 동포선수 제도 제도입의 배경은 선수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전체적인 리그 수준을 높여주는 취지다. 저변이 약한 여자농구의 현실상 취지 자체는 공감된다. 그러나 한 차례 큰 문제점이 드러난 외국 국적 동포선수의 선발을 왜 다시 시행하는지의

문점이 생긴다.

모두가 기억하는 첼시 리, 조부모가 한국인이라고 거짓말한 뒤 2015~2016시즌 WKBL에서 활약했다. 당시는 조부모 중 한 명이 한국국적을 가진 적이 있는 선수까지 동포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표선발을 위한 특별 귀화 과정에서 서류조작이 드러났다. 첼시 리는 적지 않은 연봉을 챙겨 떠났다.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WKBL만 망신을 샀다. 이에 WKBL은 동포 선수 선발 규정을 없애고, 동포선수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드래프트를 통해서만 리그에서 뛸 수 있게 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제도가 부활했다.

동포선수 선발규정 부활은 2년 전부터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재미교포 예나 김이 WKBL을 노크하며 일부 구단에서 쇼케이스 형식의 테스트를 받았지만 제도상 입단은 불가능했다. 그러자 일부 구단이 선수 수급난을 이유로 동포선수 선발 재논의의 해를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시는 첼시 리 여파가 워낙 커 WKBL이 꼼짝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이 잠잠해지자 동포선수 선발 제도는 수면 위로 부상했고, 이사회까지 통과됐다.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도 부작용은 나오기 마련이다. 팀은 성적을 얻었지만 그로 인해 국내 선수는 자리를 내줘야 한다. 셀러리에서도 동포선수가 받는 몫 때문에 그만큼을 국내선수가 양보해야 한다. 드래프트로 선발해도 에이전트가 농간을 부리면 선수에게 적지 않은 몸값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동포선수가 아무리 잘 해도 국가대표 선발은 불가능하다. WKBL에서 뛰고 싶은 진정성이 있다면 국적을 취득한 뒤 뛰어들어도 늦지 않다.

리그 차원에서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선수수급이 어렵다면 다른 해결 방법도 있다.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으면 팀을 옮길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면 된다. 현재는 1인 연봉 상한선이 있어 사실상 이적이 불가능하다. 유망주가 꽃을 피우지 못하면 다른 팀에서 재도전할 길을 열어주는 규정도 고려해야 한다. 약한 저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처럼 꾸준하게 하면 된다. 동포선수 선발이 단기적으로는 선수수급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해답이 될 수 없는 걸 관계자들도 모를 리 없다.

스포츠부 차장 gyong@donga.com

대회	출전 자격	참가 및 숙박권 후원
뉴욕마라톤 (11월)	서울국제마라톤 풀코스 완주	뉴발란스
런던마라톤 (4월)	동아마라톤 (서울·공주·경주) 3개 대회 완주	
도쿄마라톤 (2월)	동아마라톤 올해의 선수 영리너	동아오츠카
홋카이도마라톤 (8월)	동아마라톤 우수 마스터스	동아일보사